

창업교육 효과가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및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창업기간의 조절효과*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erprise Performanc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the Start-up Period

김나예(주저자) · 배정호(교신저자)

Naye Kim(First Author) · Jungho Bae(Corresponding Author)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naye0115@naver.com)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baejh@cnu.ac.kr)

본 연구는 창업교육 효과가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년 미만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업교육 효과가 창업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때,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창업자의 특성이나 심리·정서적 요인에 주목하였으며, 관심을 둔 매개변인으로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족도가 있으며, 조절변인으로 창업기간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효과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 효과는 창업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여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만족도를 부분매개하여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기간에 따라 기업성과에 대한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족도의 영향력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창업교육 효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만족도, 기업성과, 창업기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erprise performance. The research focuses on entrepreneurs with less than seven years of experience who participate in the startup support program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he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translates into enterprise performance,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repreneurs and thei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The mediating variables of interest includ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with the start-up period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최초투고일: 2024. 02. 27 수정일: (1차: 2024. 05. 11) 게재확정일: 2024. 05. 27

*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4).

Copyright 2024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can significantly influence enterprise performance, it impacts more through other variables rather than directly. Secon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positively affects enterprise performance by fully mediat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ositively influences enterprise performance by partially mediating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Third,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on enterprise performance is moderated by the start-up period.

Keyword: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Enterprise Performance, Start-up Period

1. 서론

정부는 창업을 국가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보고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창업 시작 전 혹은 창업 이후에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창업 시작 전 창업 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하였으며, 창업 시작에요인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창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이다(김용문, 2023).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의 증가는 창업기업의 증가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그 실효성은 효과적으로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창업지원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졌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창업교육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면서도 충분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창업교육이 기업의 성과와 별개의 것으로 논의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교육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창업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창업교육을 통한 개인의 내적 변

화 등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인지이론이나 계획행동이론에서 주목하는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기 메커니즘이나 교육경험 간의 연결을 위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목표를 향한 개인의 의지나 행동과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Bandura, 1997; Lent, Brown and Hackett, 1994), 창업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념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이 이야기되기도 한다(Boyd and Vozikis, 1994). 계획행동이론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Ajzen, 1991). 불확실하고 모호한 창업 과정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Krueger and Brazeal, 1994). 그런데 창업자기효능감은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에 창업교육이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지는 않으며, 개인의 특성이나 창업 관련 상황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Bullough, Renko and Myatt,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창업 이후 창업자들, 즉 실제 창업자가 경험하는 상황적 맥락은 예비창업자들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나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Chen, Greene and Crick 1998; Krueger, Reilly and Carsrud, 2000; Newman, Obschonka, Schwarz, Cohen and Nielen, 2019; Schlaegel and Koenig, 2014)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창업 이후 그들은 창업 과정의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매출이나 투자, 고용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창업교육은 주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창업의 성과는 창업자의 경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기 창업자인가 혹은 창업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창업자인가에 따라 창업교육의 요구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창업기간은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논의할 때 이전 창업경험 정도나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창업기업은 재무적 상태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증빙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재무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적 성과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비재무적 성과 측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Johnson and Kaplan, 1987). 이후 성과를 측정하는 주관적, 객관적 측면의 지표를 비교하여 그 관계성을 규명함으로써 기업성과 관련 연구를 내실화하려는 학계의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기도 하였다(Wall, Michie, Patterson, Wood, Sheehan, Clegg and West, 2004). 기존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실질적인 기업성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창업교육의 효과

와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기업성과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주관적 비재무적 지표와 주관적 재무적 지표가 객관적 기업성과 지표를 반영할 것으로 여기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 등의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자의 역량이나 태도, 행동, 가치 등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면, 창업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창업교육은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신념이나 도전의식을 고양시킨다(Wilson, Kickul and Marlino, 2007). 이러한 점에서 주목해 볼 개념은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이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에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이다(손수미, 송은실, 남정민, 2023).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 기업성으로 이어지는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창업교육의 효과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기창업자는 창업의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창업 현장 경험을 마추한 사람이라는 상황적 특성이 있다. 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요소로는 창업 실패나 성공에 따

른 두려움이나 창업만족도가 있다. 동시에 현 창업 후 경과한 기간을 확인하여, 기창업자의 특성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창업교육의 효과는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족도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경로의 영향력은 기창업자의 창업 기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창업교육 효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은 일차적으로는 기업가적 지식 및 기능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창업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이며(Gibb, 2002; Liñán, 2004; Rasmussen and Sørheim, 2006), 단순히 창업기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창업 활동을 하거나 미래에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평생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Jones, 2010).

창업교육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그 특성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Kirby(2004)는 약 205개의 창업교육 교과과정을 검토한 결과 세 가지 주요 초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에 대한 방향성과 인식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둘째, 새로운 기업형성, 자영업 또는 경제적 자급률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이다. 셋째,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다. Sirelkhatim and

Gangi(2015)는 129개 창업교육 문헌을 분석하여 세 가지 일반적인 주제를 선별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Piperopoulos and Dimov, 2015)을 가르치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학생들이 잠재적인 직업으로 창업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이론 중심 과정이다(Fayolle and Gailly, 2015). 즉, 자신의 미래에 창업을 고려하는 과정이다(Klapper and Tegtmeier, 2010). 둘째, 기업가정신(Piperopoulos and Dimov, 2015)을 가르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의 창업자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셋째, 실제 창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정신으로(Vincett and Farlow, 2008)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고(Lundqvist and Williams Middleton, 2013) 기업가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Bridge, Hegarty and Porter, 2010). 다시 말해, 창업교육은 기업가적 지식과 기능, 태도를 교육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제나 정신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정신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회 포착 능력, 혁신적인 사고, 행동력, 위험 감수 능력, 끈기 등이 있다(오은경, 채준원, 2019). 기업가정신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도 중요하다.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학습,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창의적인 사고, 네트워크, 긍정적인 태도 등이 있다(오해섭, 맹영임, 2014).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성과와 관련되며, 정부는 기업

가정신 함양을 통한 기업성과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손수미, 송은실, 남정민, 2023).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은 창업의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윤병선, 김천규, 2020).

2.2 창업교육의 효과

창업교육의 효과는 창업교육을 통해 개인이 창업 활동을 보다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정도(Walter and Block, 2016)로 정의되었다. Peterman and Kennedy(2003)의 연구는 “Young Achievement Australia”(YAA) 창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업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사전/사후 시험 통제 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교육이 수강생들에게 더 현실적인 창업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Nabi, Linan, Fayolle, Krueger and Walmsley(2017)의 메타 분석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발표된 159편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대학과 대학원 등에서 실시한 창업교육의 실증적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창업교육이 개인적 변화(태도 및 창업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창업교육 연구는 주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창업교육의 효과는 창업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Miller and Le Breton-Miller(2005)는 창업기간에 따라 기업성과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력에서 안정성으로, 유연성에서 경직성으로, 학습 능력에서 일상 활용으로, 제도적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에서 확립된 조직으로, 외부

재정 의존에서 축적된 내부 자원으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Coad, Segarra and Teruel, 2013).

창업교육의 영향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사회인지이론이나 계획행동이론은 창업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기 메커니즘이나 교육경험 간의 연결을 위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Lent et al.(1994)은 자기효능감, 결과 욕구 및 목표 지향적 움직임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창업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고 기업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Bandura(1997)는 학습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의 인지적 속성은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주요한 인지적 속성으로 자기 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 개인의 인지된 목표 등이 있다(Bandura, 1986). Newman et al.(2019)은 숙달된 경험, 대리학습 등을 통해 창업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과정을 연구하였으며, Boyd and Vozikis(1994)는 창업자기효능감을 창업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상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의 창업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하였다(Karlsson and Moberg, 2013; Lee, Hallak and Sardeshmukh, 2016; Sanchez, 2013; Zhao, Seibert and Hills, 2005).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서는 개인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그것을 행동한다고 보았다. Krueger and Brazeal(1994)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창업 과정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기 때문에,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런데 창업교육이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개인의

특성이나 창업 관련 상황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Bullough et al., 2014). Newman et al. (2019)은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대학원생들(Kubberød and Pettersen, 2017; Wilson et al., 2007; Zhao et al., 2005), 학부생들(Byabashaija and Katano, 2011; Gielnik, Uy, Funken and Bischoff, 2017; Karlsson and Moberg, 2013; Nowiński, Haddoud, Lančarič, Egerová, and Czeglédi, 2017), 고등학생들(Sanchez, 2013)과 일반인(Kerrick, Cumberland and Choi, 2016; Lee et al., 2016)의 창업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위기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높은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rueger and Brazeal, 1994; McGee, 2017). 창업자기효능감은 직업성취와 성공으로 인한 만족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창업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adley and Roberts, 2004).

또한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Cacciotti, Hayton, Mitchell and Giazitzoglu(2016)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창업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맥락에서 실패 가능성에 대한 두려운 느낌으로 정의하면서 창업 활동을 통한 과업 및 책임 실패 가능성 측면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경험의 성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Ucbasaran, Shepherd, Lockett and Lyon(2013)은 불확실성이 있는 곳에 실패가

있기 마련이므로,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많은 창업기업이 실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잠재적인 실패, 불안, 자기의 회 및 거부에 의해 두려움을 느끼며, 이는 사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창업자가 이전 창업한 기업에서의 실패경험은 창업 실패 부담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Patzelt, Gartzia, Wolfe and Shepherd, 2021). 여러 연구자(Chen, Gully and Eden, 2004; McGee, Peterson, Mueller and Sequeira, 2009; Schunk and Pajares, 2005)는 자기효능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운 일과 활동에 접근할 때 평온함을 느끼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상황이 실제보다 힘들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창업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하면, 창업교육의 효과는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창업자들의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족도와 관련지어 그 영향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기간에 따라 창업교육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창업교육의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창업 활동을 보다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하게 만들어줄 것 이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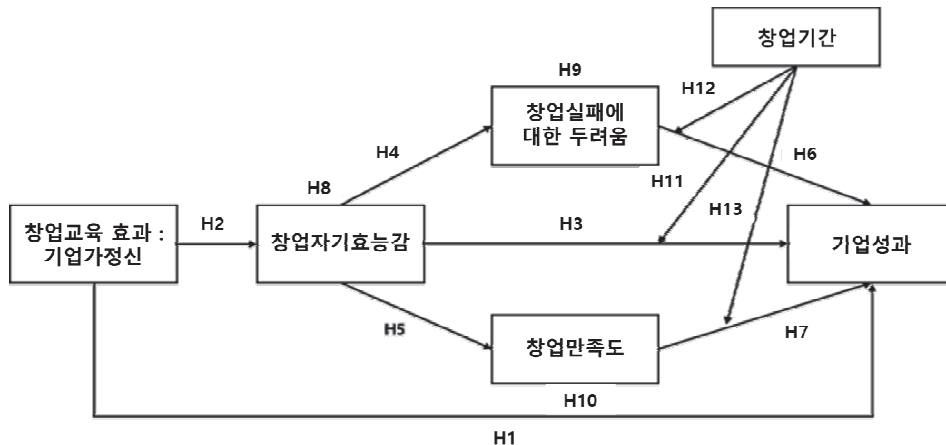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

족도의 매개효과와 창업기간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창업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창업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만족도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창업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Figure 1〉과 같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창업교육이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음이 입증된 바 있다(Karlsson and Moberg, 2013; Lee et al., 2016; Sanchez, 2013; Zhao, Seibert and Hills, 2005). 또한, 이러한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창업가들의 경우 불확실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창업 과

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rueger and Brazeal, 1994; McGee, 2017; Bradley and Roberts, 2004). 즉, 창업자기효능감은 직업 성취와 성공에 따른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창업자기효능감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가들은 어려운 일과 활동에 접근할 때 평온함을 느끼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창업가들은 상황을 과대평가하여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hen et al., 2004; McGee et al., 2009; Schunk and Pajares, 2005). 즉,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창업교육의 효과에 따라 기존 창업가들의 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창업의 만족도 및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창업가의 경우 창업기간에 따라 기존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창업의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Figure 1〉 연구의 모형

있으며, 창업기간이 길수록 그 영향력이 크기는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창업교육 효과는 기업성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창업교육 효과는 창업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성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성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창업만족도는 기업성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8: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파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가설 9: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파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 가설 10: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만족도는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파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 가설 11: 창업자기효능감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기간은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 가설 12: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기간은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 가설 13: 창업만족도가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기간은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3.2 표본설계 및 연구대상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창업지원사업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창업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20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 595개,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 이상 7년 미만의 도약기 창업기업 410개 기업을 선발한 바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창업중심대학을 거점으로 초기창업기업 219개사, 도약기 창업기업 394개사를 선발한 바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면,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창업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을 얻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인 8명의 설문을 제거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 데이터의 수는 342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창업경험이 있으며, 성별 기준으로 응답자의 74.0%가 남자, 26.0%가 여자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20대가 7.3%, 30대 25.7%, 40대 39.2%, 50대 이상이 27.8%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3%,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61.7%,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36.5%로 나타났다. 전공에서

〈Table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역	구분	명	%	영역	구분	명	%
성별	남자	253	74.0	창업지원 사업	초기창업지원	223	65.2
	여자	89	26.0		창업도약지원	107	31.3
혼인	기혼	274	80.1		기타	12	3.5
	미혼	68	19.9	창업교육 종류	비교과 프로그램	54	15.8
나이	만 20세~29세	25	7.3		창업 특강 교육	23	6.7
	만 30세~39세	88	25.7		창업 멘토링 교육	115	33.6
	만 40세~49세	134	39.2		창업 컨설팅 교육	143	41.8
	만 50대 이상	87	27.8		기타	7	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6	1.8	창업 형태	개인	121	35.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211	61.7		법인	221	64.7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25	36.5	창업 동업자수	0명	228
전공	공학계열	178	52.0	1명		44	12.9
	상경제열	86	25.1	2명 이상		70	20.5
	예체능계열	36	10.5	창업경험 횟수	0번	120	35.1
	인문사회계열	28	8.2		1번	138	40.4
	자연과학계열	6	1.8		2번 이상	84	24.6
	기타	8	2.3		지식서비스분야	37	10.8
지역	수도권	98	28.7	창업업종	제조업분야	225	65.8
	비수도권	244	71.3		기타	80	23.4
전체	-					342	100.0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전공은 공학계열로 52.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상경제열로 25.1%이다. 지역은 수도권이 28.7%, 비수도권이 71.3%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는 기혼이 80.1%, 미혼이 19.9%로 대다수가 기혼이었다. 연구대상들의 창업기업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35.4%이고 법인사업자가 64.7%였다. 창업 동업자 수는 없는 경우가 66.7%이고 1명이 12.9%, 2명 이상이 14.0%로 나타났다. 이전 창업 경험 횟수는 처음인 사람이 35.1%, 1번 있는 사람이 40.4%, 2번 이상이 24.6%로 1번 이상의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창업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로 65.8%이며, 지식서비스

분야는 10.8%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3.3 변인의 조작적 정의

3.3.1 기업성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로 정의하였다.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설문은 총 5문항(재무적 설문 3문항, 비재무적 설문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로 측정하였다.

기업성과는 McGee(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적 척도와 Jaworski and Kohli(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재무적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3.3.2 창업교육 효과: 기업가정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창업교육 효과는 ‘창업교육을 통해 개인이 창업활동을 보다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특히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이라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Walter and Block(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창업교육을 측정하는 설문을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로 측정하였다.

3.3.3 창업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역할 및 과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Wilson et al.(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창업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은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로 측정하였다.

3.3.4 창업만족도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창업만족도는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창업 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의 성과에 대한 기대 달성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Kautonen and Palmroos(2010)

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창업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초기에는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2) 같은 종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사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 문항은 요인분석 시 0.3 이하 계수로 잠재변인을 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3.3.5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을 불확실하고 모호한 맥락에서 실패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의 느낌’으로 정의하였으며, Cacciotti, Hayton, Mitchell and Allen(2020)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창업 자금 지원 능력, 아이디어의 잠재력, 사회적 평판에 대한 위협, 기회 비용, 개인 능력, 금융 안정성, 창업 실행 능력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3문항씩하여 총 21문항의 설문응답을 수집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렇다 = 5”로 측정하였다. 연구모델에 투입할 때는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을 내어 7개의 측정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8점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3.6 창업기간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창업기간은 타 창업을 포함한 누적기간이 아닌 현재 창업만을 기준으로 창업 이후 경과한 기간을 지칭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3항에서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창업 이후 0년~7년 사이의 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들에게 창업 이후 경과 된 시간을 질문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ver. 26과 AMOS ver. 28을 사용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설문 응답자의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Table 2),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창업교육 효과로서 기업가정신 향상은 4문항, 창업자기효능감은 6문항, 창업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21문항, 창업만족도는 2문항, 기업성과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 일부문항에서 요인계수 값은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개념을 어느정도 잘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에서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CR) 값은 .7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수렴 및 집중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한편,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제곱상관계수보다 어느 정도 큰 것으로 보아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모든 변수를 동시에 측정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측정의 타당성을 훼손하고 연구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Hartman의 단일요인검증(one-factor test)을 실시하여 동일방법편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Podsakoff and Organ, 1986). 단일요인검증은 통계적 사후 해결책으로서, 모든 측정 변수들이 단일 잠재 요인으로 설명될 경우 동일방법편의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 변수를 상위 개념으로 한 개의 잠재 변인으로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CFI=.761, TLI=0.772, RMSEA=0.126, RMR=0.114)가 전체 측정 모형의 적합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방법편의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Podsakoff, MacKenzie, Lee, and Podsakoff, 2003).

셋째,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거치고 생성되는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등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Table 3>은 변수 간 상관 및 기술통계, 신뢰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변인과 성별(더미), 연령, 교육, 동업자 여부(더미), 이전 창업 경험 여부(더미)의 관련성도 확인하였으며,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성별, 동업자 여부, 이전 창업경험 여부는 연구모델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넷째, 연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연구가설의 기각 및 채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경로분석 시 창업기간을 투입하기 전의 매개효과 모델 결과와 함께 창업기간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조절효과 모델의 결과, 즉 2가지 결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Table 2〉 변수의 구성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측정 문항의 구성	Factor Loading	S.E.	t	
기업성과	1) 우리 회사는 동종업계의 유사한 기업과 비교하여 세후 순이익이 더 높다.	.893	.045	20.95	
	2) 우리 회사는 동종업계의 유사한 기업과 비교하여 총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	.915	.045	21.71	
	3) 우리 회사는 동종업계의 유사한 기업과 비교하여 회사 전체 실적이 더 높다.	.935	.043	22.52	
	4) 우리 회사의 작년 사업 전체 실적에 대해 만족한다.	.816	.053	16.24	
	5) 작년 주요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전체 실적에 대해 만족한다.	.839	.050	16.80	
창업교육 효과: 기업가 정신	1) 나는 창업지원사업 창업교육을 통해 나의 진취성(일종의 기업가적인 태도)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893	.033	20.65	
	2) 나는 창업지원사업 창업교육을 통해 사회 내 기업가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869	.039	19.77	
	3) 나는 창업지원사업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825	.042	18.25	
	4) 나는 창업지원사업 창업교육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았다.	.831	.043	18.44	
창업 자기 효능감	1) 나는 다른 창업자에 비해 문제를 더 잘 해결한다.	.650	.035	12.91	
	2) 나는 다른 창업자에 비해 자금을 더 잘 관리한다.	.846	.034	18.71	
	3) 나는 다른 창업자에 비해 더 창의적이다.	.812	.034	17.56	
	4) 나는 다른 창업자에 비해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더 잘 설득한다.	.737	.034	15.26	
	5) 나는 다른 창업자에 비해 더 리더에 적합하다.	.714	.038	14.61	
	6) 나는 다른 창업자에 비해 더 결단력 있다.	.628	.037	12.32	
창업 만족도	1) 다른 회사에 고용되는 것에 비해 창업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632	.047	9.82	
	2) 전반적으로 창업자로서 만족한다.	.918	.052	12.39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자금 지원(조달) 능력	1) 지난 몇 달간 나는 회사를 발전시킬 충분한 자금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589	.056	11.55
		2) 지난 몇 달간 나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3) 지난 몇 달간 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아이디어의 잠재력	4) 지난 몇 달간 나는 아무도 우리 제품/서비스에 관심 갖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다.	.819	.055	18.14
		5) 지난 몇 달간 나는 이것이 가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아닐까 봐 두려워했다.			
		6) 지난 몇 달간 나는 우리 제품/서비스가 외부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다.			
	사회적 평판에 대한 위협	7) 지난 몇 달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대감을 두려워했다.	.844	.049	18.95
		8) 지난 몇 달간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9) 지난 몇 달간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Table 2〉 변수의 구성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계속)

구분	측정 문항의 구성	Factor Loading	S.E.	t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10) 지난 몇 달간 나는 사업 운영으로 인해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다.	.663	.058	13.47
	11) 지난 몇 달간 나는 사업 때문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놓칠까 봐 두려워했다.			
	12) 지난 몇 달간 나는 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13) 지난 몇 달간 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833	.050	18.59
	14) 지난 몇 달간 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15) 지난 몇 달간 나는 이 일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이행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16) 지난 몇 달간 나는 돈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다.	.706	.056	14.61
	17) 지난 몇 달간 나는 저축한 돈을 다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18) 지난 몇 달간 나는 사업/사업 활동에 투자한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19) 지난 몇 달간 나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했다.	.911	.045	21.53
	20) 지난 몇 달간 나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했다.			
	21) 지난 몇 달간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했다.			

- *: $p < .05$, **: $p < .01$, ***: $p < .001$

-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χ^2/df 가 929.00 / 232 ($p < .001$ ***), CFI는 .923, TLI는 .901, RMSEA는 0.04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Table 3〉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A	B	C	D	E	C.R.	M	SD	Min	Max
A. 창업교육 효과	.731	.217	.071	.006	.007	.916	4.107	.790	1	5
B. 창업자기효능감	.466*	.541	.131	.007	.065	.875	3.921	.596	2.5	5
C. 창업만족도	.267*	.362*	.621	.002	.001	.760	4.164	.622	2.5	5
D.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079	-.085	-.044	.599	.000	.911	2.887	.912	1	5
E. 기업성과	.151*	.347*	.028	.209**	.761	.876	2.96	.974	1	5
창업기간	-.112*	-.125*	-.174**	.051	.030	-	2.92	1.570	0	6
성별	-.087	.055	-.108*	.020	.024	-	.260	.439	0	1
연령	.058	-.023	.047	.057	-.096	-	2.874	.902	1	4
교육	.012	.021	.011	.055	.061	-	2.35	.513	1	3
동업자 여부	-.141*	-.213*	-.075	.023	.062	-	.334	.376	0	1
이전 창업경험 여부	-.007	-.143*	-.122*	-.045	.194*	-	.610	.454	0	1

- 음영으로 칠해진 대각선 위 수치는 평균분산추출(AVE), 대각선 아래는 상관계수, 대각선 위는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의미함.

- *: $p < .05$

IV. 연구결과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창업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창업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만족도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적 관계를 수립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 값이 1425.380으로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나, 자유도에 따라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사적합도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CFI 값은 .901 TLI 값은 .899, RMSEA 값은 .065으로 나타나 분석 진행에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4.1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검증

먼저, 창업교육 효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효과($p > 0.05$)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창업교육 효과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효과($\beta = .503, p < .001$)는 창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성과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53, p < .001$).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자기효능감

〈Table 4〉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 검증

경로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SE	t	p
창업자기효능감	창업교육 효과	.503	.043	8.072	.000***
	창업 경험 여부	-0.092	0.05	-1.811	0.07
	동업자 여부	-0.11	0.06	-2.17	0.03*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자기효능감	-.087	.102	-1.495	.135
창업만족도	창업자기효능감	.469	.092	7.469	.000***
	창업 경험 여부	-0.068	0.075	-1.293	0.196
	성별	-0.137	0.077	-2.631	0.009**
기업성과	창업자기효능감	.453	.172	4.819	.000***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077	.067	.661	.508
	창업만족도	.183	.106	2.847	.004**
	창업교육 효과	-.078	.093	.618	.537
	창업 경험 여부	0.331	0.107	6.435	.000***

- *: $p < .05$, **: $p < .01$, ***: $p < .001$

-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χ^2/df 가 1312.170/245($p < .001$ ***), CFI는 .901, TLI는 .899, RMSEA (LO 90 - HI 90)는 .065 (.054 - .07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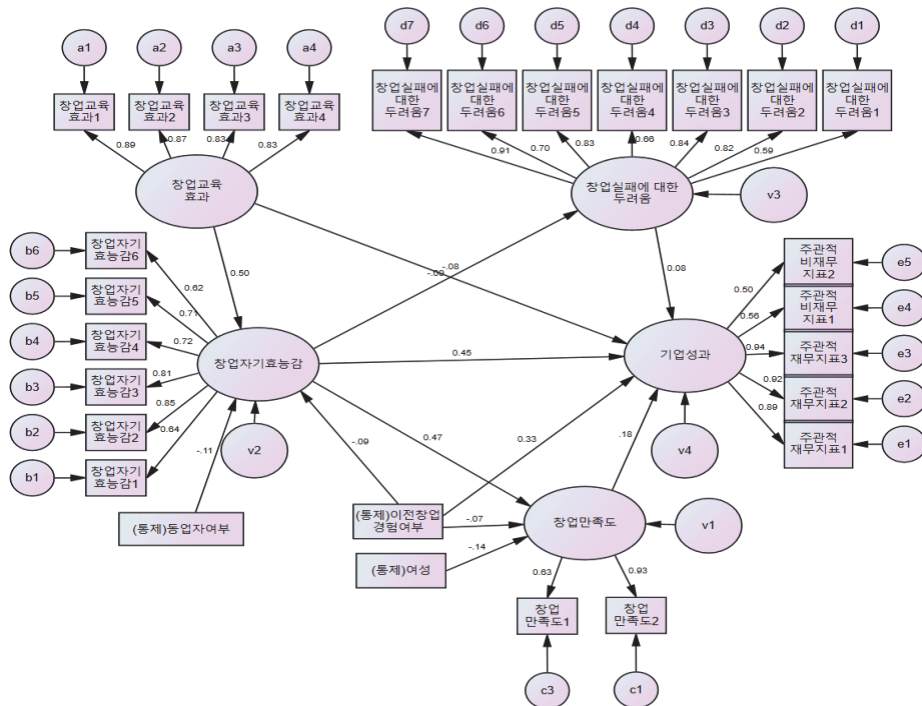
($p > 0.05$)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자기효능감($\beta=469$, $p < .001$)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5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p > 0.05$)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6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만족도($\beta=.183$, $p < .01$)의 경우에도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7은 채택되었다.

한편, 통제변인 중 동업자 여부는 창업자기효능감을 감소시켰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창업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전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기업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4.2 매개효과 검증

이상의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일부 매개효과 경로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Baron and Kenny, 1986). 창업교육의 효과가 창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의 효과와 기업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매개 경로



〈Figure 2〉 매개모형의 경로구조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603$, $p < .001$). 한편,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만족도가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간접효과 크기를 확인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효과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B)는 .320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인 .198과 상한값인 .492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8은 채택되었다. 앞서 창업교육 효과는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만을 미치는 결과이므로 창업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업교육 효과가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개인의 내적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효과에서 창업자기효

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중매개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인 -.029과 상한값인 .002 사이에 0을 포함하므로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9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효과에서 창업자기효능감, 창업만족도를 이중매개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B)는 .061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인 .018과 상한값인 .138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10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효과는 창업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여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만족도를 부분매개하여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조절효과 검증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기효능감(모델1),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모델2), 창업만족도(모델3)의 영향력이 창업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5〉 기업성과에 대한 창업교육 효과와 창업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B	LLCI (95%)	ULCI (95%)
창업교육 효과 → 창업자기효능감 → 기업성과	.320	.198	.492
창업교육 효과 → 창업자기효능감 →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 기업성과	-.005	-.029	.002
창업교육 효과 → 창업자기효능감 → 창업만족도 → 기업성과	.061	.018	.138

*: $p < .05$

먼저, 창업기간이 창업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모델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성과에서 .461만큼, 창업기간의 경우 기업성과에서 .506만큼, 창업기간과 창업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 같은 경우 -.505로 그 영향력이 나타났다. 시간에 따라 창업자기효능감의 정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어, 창업기간에 따른 위 경로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창업기간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모델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에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니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성과에 .152만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기간이 기업성과에 .136만큼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기간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상호작용항은 -.154로 계수가 나타났다. 이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만, 창업기간을 고려한다면 창업기간이 오래될수록 두려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Table 6〉 창업기간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1				Model2				Model3				
		β	se	t	p	β	se	t	p	β	se	t	p	p
창업자기효능감	창업교육 효과	.503	.042	7.922	.000***	.333	.042	7.898	.000***	.504	.042	7.911	.000***	.000***
	창업 경험 여부	-.091	.050	-1.792	.073	-.090	.050	-1.810	.070	-.094	.050	-1.844	.065	
	동업자 여부	-.112	.060	-2.198	.028*	-.131	.060	-2.171	.030*	-.108	.060	-2.122	.034*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자기효능감	-.087	.104	-1.468	.142	-.087	.104	-1.464	.143	-.086	.104	-1.446	.148	.139
	창업만족도													
창업만족도	창업자기효능감	.469	.093	7.354	.000***	.469	.093	7.331	.000***	.493	.091	6.952	.000***	.000***
	창업 경험 여부	-.068	.075	-1.297	.195	-.068	.075	-1.294	.196	-.074	.072	-1.307	.191	
	성별	-.137	.077	-2.637	.008**	-.137	.077	-2.635	.008**	-.149	.073	-2.634	.008**	
기업성과	창업자기효능감	.461	.185	8.093	.000***	.433	.169	5.578	.000***	.187	.168	5.630	.000***	.000***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049	.063	1.444	.149	.152	.064	2.94	.003**	.036	.062	1.695	.090	.322
	창업만족도	-.109	.099	-2.458	.014*	.169	.100	2.536	.011*	.144	.123	4.613	.000***	.002**
	창업기간	.506	.031	15.149	.000***	.136	.030	2.796	.005**	.634	.031	29.692	.000***	.000***
	창업기간 × 창업자기효능감	-.505	.008	-14.719	.000***	-	-	-	-	-	-	-	-	-
	창업기간 ×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	-	-	-	-0.154	.009	-3.115	.002**	-	-	-	-	-
	창업기간 × 창업만족도	-	-	-	-	-	-	-	-	-.637	.009	-27.320	.000***	.000***
	창업교육 효과	-.070	.088	-1.723	.085	-0.069	.088	-1.132	.258	-.039	.086	-1.508	.132	
	창업 경험 여부	.212	.106	6.395	.000***	0.326	.107	6.534	.000***	.146	.103	7.024	.000***	.417

- *: $p < .05$, **: $p < .01$, ***: $p < .001$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가설1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간이 창업만족도와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모델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144만큼 영향을 미쳤고, 창업기간의 경우 기업성과에 대해 .634만큼 영향을 미쳤다. 창업기간과 창업만족도의 상호작용항 같은 경우 기업성과에 -.637로 그 영향력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창업자의 창업기간이 오래될수록 창업만족도의 정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13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창업기간에 따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7>과 같다.

V.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효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족도 및 기업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매개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창업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다.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의 창업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개변인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만족도를 설계하였고, 조절변인으로는 창업기간을 고려함으로써, 창업교육의 효과와 기업성과 사이를 연결하는 창업가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가들

<Table 7> 가설채택 여부

가 설		결 과
H1	창업교육 효과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창업교육 효과는 창업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5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7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H9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의 관계를 이중매개 할 것이다.	기각
H10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만족도는 창업교육 효과와 기업성과의 관계를 이중매개 할 것이다.	채택
H11	창업자기효능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기간은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채택
H12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기간은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채택
H13	창업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기간은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채택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342 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창업가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의 효과가 기업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창업교육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abi et al.(2017)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방대한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이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특성화된 창업교육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25년간 종단 연구를 실시한 Lange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의 효과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창업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거나 기업성과와 관련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교육의 내용이나 효과로 기업가정신 함양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기업가정신은 변화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할 수 있는 창업 속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향상된다면 효과적인 창업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기창업자들에게는 예비창업자들과는 달리 실질적인 기업의 성과와의 관련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창업교육의 내용이나 목표 등은 수강생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겠으며,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교육 효과는 창업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지이

론이나 계획행동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의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지 구조의 설명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에서의 성공요인으로 주목받는 변인이었다. Wilson et al.(2007)은 우수한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기업 활동 능력과 더불어 자기효능감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Cox, Mueller and Moss(2012)는 창업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의 창업자기효능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그 외 Kilenthong, Hills and Monllor(2008)의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학생들의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교육은 주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측면이 있기에(Karlsson and Moberg, 2013; Lee et al., 2016; Sanchez, 2013; Zhao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창업자의 경우에도 창업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보인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창업 과정의 특성상 이를 극복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인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성장을 위한 중요한 창업자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Ajzen, 1991).

셋째,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창업자기효능감 증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ielnik et al.(2017)은 창업자의 창업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 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촉진한다고 하였으며, Miao, Humphrey and Qian(2017)은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연구에서 심리적 측면의 핵심이며,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동기, 의도, 행동 및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ewman et al. (2019)은 창업자기효능감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와 더불어 창업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창업자기효능감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이러한 결과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자기효능감이나 기업성과와 완전히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행연구(Chen et al., 2004; McGee et al., 2009; Schunk and Pajares, 2005)에서 자기효능감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운 일과 활동에 접근할 때 평온함을 느끼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상황이 실제보다 힘들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불안감이 커졌다. 그리고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위기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기에 (Krueger and Brazeal, 1994; McGee, 2017)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창업 실패는 창업자의 개인적 기업가 역량이나 태도 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이나 조달 등의 금전적 문제 등의 원인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기효능감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하위요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등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관련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kotić(2016)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창업자의 만족도가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Hundley (2001)는 자신의 직업을 설계하고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능력이 좋은 창업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창업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직무만족을 느끼면 개인은 자신의 일에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고, 직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몰두하게 된다(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and Bakker, 2002). 이를 통해 창업만족도는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기에 창업만족도는 실제 창업 경험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효용성, 성공 경험 등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즉 창업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이 클수록 기업성과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창업기간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을 때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창업기간에 따라 기업성과가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다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상호작용항이 음수라는 점에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은 창업 초기일 때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이나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반면, 지나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업무 효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가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일곱째, 기업성과와 창업자기효능감, 기업성과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기업성과와 창업만족도의 관계에서 창업기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창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창업자기효능감이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기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직이 점점 비활성화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관성 효과(Inertia effects)를 경험할 수 있다(Coad et al., 2013). 본 연구는 창업기간이 7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막 창업한 신생 기업에 비해 창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조직 활성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생산성이 창업초기에 비해 감소하는 관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창업기간은 기창업자의 현실 창업 경험의 정도를 의미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기업성과로 이어지는 창업교육의 효과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초기 단계에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초기 단계에는 적절한 수준의 실패 두려움이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와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저하, 새로운 도전 회피, 위험 감수 감소로 이어져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성공 경험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절한 수준의 위험 감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에는 높은 수준의 창업만족도가 높은 사기와 적극적

인 노력으로 이어져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업만족도가 지속되지 않거나 감소하면, 창업자의 열정과 동기 부여가 저하되고, 이는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경험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교육의 효과와 더불어 창업자의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창업지원사업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창업 후 경험 정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생애주기 이론(Life Cycle Theory of Entrepreneurship) 관점에서 창업기업을 조망하는 시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률적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실험실 등) 창업교육 커리큘럼과 창업지원사업을 편성하여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창업자의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지원과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창

업자들의 자신감과 기술, 리더십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패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자들의 의지와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마인드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때 실패 경험을 배우는 기회로 전환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창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내용과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효과가 높을수록 창업자기효능감에 따른 기업성고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기술, 지식, 전략 등을 제공하고, 창업과 관련된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해야 한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창업이라는 도전을 헤쳐나가고 있는 창업자들의 창업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고를 효과적인 평가 도구와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으로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일반 창업교육과 창업 분야별로 맞춤형 창업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창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자와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창업자를 구별하여 그 차이를 분석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4.8%로 나타났다. 즉,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자에 비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창업자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대상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를 밝힐 필요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형으로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Piperopoulos and Dimov(2015)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교육은 이론적 창업교육과 실습형 창업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창업교육 유형에 따라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형태별로 창업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이론적 창업교육과 실습형 창업교육에 따라 기업성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를 추가로 분석한다면 창업교육의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손수미, 송은실, 남정민(2023),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연구: 2000년 이후 국내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7권 1호, pp.5-23.
- (Son, S. M., Song, E. S. and Nam, J. M.(2023), “A Meta-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since the 2000s Focusing on Domestic Empirical Research,”

- The Journal of Korean Career · Entrepreneurship & Business Association*, 7(1), pp.5-23.)
- 오은경, 채준원(2019), “부산형 기업가정신 개념과 의의,” **부산산업과학혁신원**, pp.1-31.
- (Oh, E. G. and Chae, J. W.(2019),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Busan-style Entrepreneurship,”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p.1-31.)
- 오해섭, 맹영임(2014),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313.
- (Oh, H. S. and Maeng, Y. I.(2014), “A Study on Measures to Nurture Young Entrepreneurs and Promote Business Startup,”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p.1-313.)
- 윤병선, 김천규(2020),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창업교육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5권 3호, pp.207-221.
- (Yoon, B. S. and Kim, C. K.(2020), “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3), pp.207-221.)
- 김용문(2023), “2022년 창업기업실태조사(2020년 기준),” **창업진흥원**, 142016, pp.1-249.
- (Kim, Y. M.(2023), “2022 Survey on Start-up Companies(as of 2020),”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142016, pp.1-249.)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pp.179-211.
- Bakotić, D.(2016),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sational performance,” *Economic Research-Ekonomska Istraživanja*, 29(1), pp.118-130.
- Baron, R. M. and D. A.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 Hall*.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 Boyd, N. G. and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pp. 63-77.
- Bradley, D. E. and J. A. Roberts(2004), “Self-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Investigating the role of self-efficacy,” depression, and seniorit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 (1), pp.37-58.
- Bridge, S., C. Hegarty, and S. Porter(2010), “Rediscovering enterprise: Developing appropriate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ion + Training*, 52(8/9), pp.722-734.
- Bullough, A., M. Renko, and T. Myatt(2014), “Danger zone entrepreneurs: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and self-efficacy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3), pp. 473-499.
- Byabashaija, W. and I. Katano(2011), “The impact of college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in Uganda,”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6(1), pp.127-144.
- Cacciotti, G., J. C., Hayton, J. R. Mitchell, and D. G. Allen(2020), “Entrepreneurial fear of

- failur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5(5), Article 106041.
- Cacciotti, G., J. C. Hayton, J. R. Mitchell, and A. Giazitzoglu(2016), "A reconceptualization of fear of failure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3), pp.302-325.
- Chen, C. C., P. G. Greene, and A. Crick(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pp.295-316.
- Chen, G., S. M. Gully, and D. Eden(2004), "General self-efficacy and self-esteem: Toward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tinction between correlated self-evalu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pp.375-395.
- Coad, A., A. Segarra, and M. Teruel(2013), "Like milk or wine: Does firm performance improve with ag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24, pp.173-189.
- Cox, L., S. L. Mueller, and S. Moss(2012),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 (2), pp.286-299.
- Fayolle, A. and B. Gailly(2015),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 Hysteresis and persiste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1), pp.75-93.
- Fornell, C. and D. F. Larcker(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pp.39-50.
- Gibb, A.(2002), "Creating conducive environments for learning and entrepreneurship: living with, dealing with, creating and enjoy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16(3), pp.135-148.
- Gielnik, M. M., M. A. Uy, R. Funken, and K. M. Bischoff(2017), Boosting and sustaining passion: A long-term perspective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train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3), pp.334-353.
- Hundley, G.(2001), "Why and when are the self-employed more satisfied with their work?,"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40(2), pp.293-316.
- Jaworski, B. J. and A. K. Kohli(1993), "Market orientat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rketing*, 57(3), pp.53-70.
- Johnson, H. T. and R. S. Kaplan(1987), "The rise and fall of management accounting," *Strategic Finance*, 15(3), pp.36-44.
- Jones, C.(2010),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visiting our role and its purpose,"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7(4), pp.500-513.
- Karlsson, T. and K. Moberg(2013), "Improving perceived entrepreneurial abilities through education: Exploratory testing of an entrepreneurial self efficacy scale in a pre-post sett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1(1), pp.1-11.
- Kautonen, T. and J. Palmroos(2010), "The impact of a necessity-based start-up on subsequent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6(3), pp.285-300.
- Kerrick, S., D. Cumberland, and N. Choi(2016), "Comparing military veterans and civilians response to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9(1), pp.9-23.

- Kilenthong, P., G. Hills, and J. Monllor(2008),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inten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8 (4), pp.110-121.
- Kirby, D. A.(2004),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business schools meet the challenge?," *Education + Training*, 46(8/9), pp.510-519.
- Klapper, R. and S. Tegtmeier(2010), "Innovating entrepreneurial pedagogy: Examples from France and Germany,"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7 (4), pp.552-568.
- Krueger, N. F. and D. V. Brazeal(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3), pp.91-104.
- Krueger, N., M. Reilly, and A. Carsrud(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5/6), pp.411-432.
- Kubberød, E. and I. B. Pettersen(2017), "Exploring situated ambiguity in students' entrepreneurial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59(3), pp.265-279.
- Lange, J., E. Marram, A., Jawahar, W. Yong, and W. D. Bygrave(2014), "Does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ve lasting value? A study of careers of 3,775 alumni,"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1, pp.210-225.
- Lee, C., R. Hallak, and S. R. Sardeshmukh(2016),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restaurant performance: A higher-order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53, pp.215-228.
- Lent, R. W., S. D. Brown, and G. Hackett(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pp.79-122.
- Liñán, F.(2004), "Intention-based mode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iccola Impresa/ Small Business*, 3(1), pp.11-35.
- Lundqvist, M. A. and K. L. Williams Middleton (2013), "Academic entrepreneurship revisited- university scientists and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0(3), pp.603-617.
- McGee, J. E.(2017), "The long-term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7(3), pp. 720-737.
- McGee, J. E., M. Peterson, S. L. Mueller, and J. M. Sequeira(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3(4), pp.965-988.
- Miao, C., R. H. Humphrey, and S. Qian(2017), "A meta-analysis of emotional intelligenc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mediated by job resources, and a test of modera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6, pp.281-288.
- Miller, D. and I. Le Breton-Miller(2005), *Managing for the long run: Lessons in competitive advantage from great family business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Nabi, G., F. Linan, A. Fayolle, N. Krueger, and A. Walmsley(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6(2), pp.277-299.
- Newman, A., M. Obschonka, S. Schwarz, M. Cohen,

- and I. Nielsen(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Part B), pp.403-419.
- Nowiński, W., M. Y. Haddoud, D. Lančarič, D. Egerová, and C. Czeglédi(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gender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Visegrad countri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4 (2), pp.361-379.
- Patzelt, H., L. Gartzia, M. T. Wolfe, and D. A. Shepherd(2021), "Managing negative emotions from entrepreneurial project failure: When and how does supportive leadership help employe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6(5), Article 106129.
- Peterman, N. E. and J. Kennedy(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pp.129-144.
- Piperopoulos, P. and D. Dimov(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pp.970-985.
- Podsakoff, P. M. and D. W. Organ(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pp.531-544.
- Podsakoff, P. M., S. B. MacKenzie, J.-Y. Lee, and N. P. Podsakoff(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pp.879 - 903.
- Rasmussen, E. and R. Sørheim(2006), "Action-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echnovation*, 26(2), pp.185-194.
- Sanchez, J. C.,(2013), "The impact of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pp.447-465.
- Schaufeli, W. B., M. Salanova, V. Gonzalez-Roma, and A. B. Bakker(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pp.71-92.
- Schunk, D. H. and F. Pajares(2005), "Competence beliefs in academic functioning," In A. J. Elliot & C. Dweck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Guilford Press, pp.85-104.
- Schlaegel, C. and M. Koenig(201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 A meta-analytic test and integration of competing model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 (2), pp.291-332.
- Sirelkhatim, F. and Y. Gangi(2015),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curricula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Cogent Business & Management*, 2(1), Article 1052034.
- Ucbasaran, D., D. A. Shepherd, A. Lockett, and S. J. Lyon(2013), "Life after business failure: The process and consequences of business failure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Management*, 39(1), pp.163-202.
- Vincett, P. S. and S. Farlow(2008), "Start-a-Business: An experiment in education through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pp.274-288.

- Wall, T. D., J. Michie, M. Patterson, S. J. Wood, M. Sheehan, C. W. Clegg, and M. West(2004), "On the validity of subjective measures of company performance," *Personnel Psychology*, 57(1), pp.95-118.
- Walter, S. G. and J. H. Block(2016), "Outcom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2), pp.216-233.
- Wilson, F., J. Kickul, and D. Marlino(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pp.387-406.
- Zhao, H., S. E. Seibert, and G. E. Hills(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pp. 1265-1272.

-
- 저자 김나에는 현재 한남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및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충남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재직 중에 다양한 창업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연구분야는 경영학, 마케팅, 소비자행동, 창업, 융합 등이다.
 - 저자 배정호는 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카드에서 근무 경험이 있으며 주요연구분야는 창업 및 마케팅 전반이다.